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2014년 6월 2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자원개발전략과 이민철 과장(044-203-5140), 장혜정 사무관(044-203-5141)
아주통상과 양기욱 과장(044-203-5710), 유용상 주무관(044-203-5716)

인도네시아와 에너지·자원 협력사업 확대

- '제7차 한-인니 에너지포럼' 및 '제4차 가스개발 WG' 개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윤상직)는 한국의 제2위 석탄 및 가스 수입국으로서 에너지·자원 분야의 핵심 협력 국가인 인도네시아와 새로운 협력기회 모색을 위해 6월 2일(월) **'제7차 한-인니 에너지포럼' 및 '제4차 가스개발 워킹그룹'**을 제주도에서 개최함.

○ 두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과 인도네시아 수로노(Surono) 지질청장을 대표로 **총 100여 명**의 양국 정부 관계자, 관련 기관 및 기업 등이 참석

* 주요 참석 : (한) 한전, 가스공사, 포스코에너지, SK E&S 등 13개 기업·기관
(인) 석유가스청(Migas), 석유공사(Pertamina), 전력청 등 13개 기업·기업

○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에너지·자원분야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하여 해마다 번갈아가며 민·관이 참여하는 에너지포럼 및 가스개발 워킹그룹을 **개최**해 왔음.

* 에너지포럼은 '06년부터, 워킹그룹은 '12년부터 매년 교차 개최

□ **가스개발 워킹그룹**에서는 상류, 중류, 하류 등 가스산업 全가치사슬에 걸친 양국기업간 협력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음.

○ **상류 부문**에서는 인도네시아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**석탄층 메탄가스**를 양국이 함께 **최적화된 생산기법**을 **연구**하여 **개발**하기 위한 목적의 **공동연구**를 수행하는 방안을 협의함.

○ **중류 부문**에서는 1만 7천개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 국토 특성을 반영한 **가스물류체계**를 **구축**하기 위해 **해상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터미널, 소규모 액화천연가스 운반선, 육상 소규모 액화 설비 구축 사업** 등의 프로젝트를 공동 개발키로 합의함.

○ **하류 부문**에서는 SK E&S가 외국기업 최초로 **인도네시아 도시가스공급사업**에 투자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며, 사업파트너인 인도네시아 석유공사(Pertamina)와 발전, 액화천연가스, 에너지 응용기술, 가스인프라 분야 등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해 **협력 양해각서**도 **체결**함.

- 또한 한국전력은 인니전력공사와 연110만톤 생산규모의 **합성천연가스(SNG) 플랜트**를 **건설·운영**하는 **대규모 프로젝트**(약2조9천억원) **개발**을 위하여 공동 컨소시움 구성 및 사업개발협약 체결 방안을 논의함.

○ 그 이외에도 한국가스안전공사는 '13.10월 박근혜 **대통령 인도네시아 국빈 방문**시 체결한 가스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**MOU의 후속조치로** 가스안전진단, 안전교육, 가스안전 기준안 제작 등을 지원하기로 인인도네시아 측과 합의함.

□ 한편 에너지 포럼에서는 '에너지 개발 및 기술협력'을 주제로 석유·가스, 석탄·광물, 전력, 신재생에너지 등 4개 분과에서 부문별 정책교류 및 협력사업 제안 등 양국 에너지·자원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함.

○ **전력 분과**에서는 국내 발전사가 인도네시아 **잠비주 테보**에 추진중인 **석탄화력 발전소** 사업에 대한 협력과 합성천연가스(SNG)와 같은 저렴한 에너지자원 확보 등을 통한 인도네시아 전력산업 발전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함.

○ **신재생에너지 분과**에서는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지열자원(전 세계

지열 발전 가능량의 40% 보유)을 활용한 **지열발전 프로젝트**와 도서지역이 많아 소규모·독립적 전력생산이 필요한 인도네시아에 적합한 **연료전지 및 독립형 전원시스템**을 제안하고 협력을 논의함.

○ **석탄·광물 분과**에서는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저열탄과 우드펠렛(Wood Pellet : 나무 압착 연료) 등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**그린콜 사업**과 지속가능한 자원개발을 위한 **광해관리 역량강화 협력사업**을 논의함.

○ 마지막으로 **석유·가스 분과**에서는 동시에 진행되었던 가스개발 워킹그룹 분과별 논의의 결과를 전체 대표단과 공유하고 더욱 깊이 있게 논의함.

□ 양국 정부 및 기업은 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지난 수년간의 협의와 이번 회의의 논의 성과로 **2개 양해각서**를 **체결**하였음.

【양해각서 2건 개요】

① (한)한국선급 - (인니)Pertamina(석유공사)간 양해각서
- 해상부유식 LNG 벙커링 터미널 공동 타당성 분석

② (한)SK E&S - (인니)Pertamina Gas간 양해각서
- LNG, 응용기술 및 가스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관계 심화·발전

□ 김준동 에너지자원실장은 에너지포럼 및 가스개발 워킹그룹이 양국 기업간 진행중인 **에너지·지원 분야 협력사업**에 **추동력**을 부여하고, **협력 범위**도 자원 개발에서 가공 및 활용, 서비스 등 **全 가치사슬 분야로 확대하는 계기**를 **마련**하여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힘.

참고1 제7차 한-인니 에너지포럼 개요

□ 추진배경

○ 한-인니간 에너지분야 정책교류와 협력사업 발굴·지원을 위한 정례적 민관 협력채널인 제7차 에너지포럼 개최

* 한-인니 자원협력위('79년 설치)가 '07년부터 에너지포럼으로 개편되어 매년 개최

○ 아울러, 가스개발의 구체적인 프로젝트 논의를 위한 제4차 가스개발 WG

* 포괄적 에너지협력 MOU('12.3.28)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년 2회 WG 개최

□ 개 요

○ 일시/장소: '14.6.2(월) / 제주도 라마다 호텔

* 6.3(화) 신재생에너지홍보관 등 제주현지 현장시찰 실시

○ 참석자(100여명)

- (한국측) 에너지자원실장(수석대표), 한국전력, 포스코에너지, 가스공사 등
- (인니측) 지질청장(수석대표), Pertamina(석유공사), PGN(가스공사)등

○ 주요 내용: 총 4개 세션별 의제* 논의 등

* **(석탄광물)** 클린콜 및 그린콜 사업 추진 등, **(전력)** 인도네시아 SNG(Synthetic Natural Gas) 사업 등, **(신재생)** 지열프로젝트 협력 등 **(석유가스)** 가스개발 WG 결과발표로 대체

□ 회의일정

시간	주요일정	비고
09:00-09:40	개회식	
10:00-14:00	전력 및 신재생 세션	에너지포럼
14:00-16:15	석탄광물 및 석유가스 세션	
10:00-14:00	가스개발 WG 분과별 진행	가스개발 WG
14:00-15:10	가스개발 WG 분과별 결과정리	
16:15-17:00	폐회식	
18:00-20:00	만찬	

* WG 및 포럼 의제논의는 별도 진행 / 개회식·폐회식 등 공동 진행